메리츠 금융 Daily

은행/지주 Analyst 은경완
02. 6454-4870
kw.eun@meritz.co.kr

meritz 메리츠증권

2021년 10월 19일 (화)

News

집단대출, 협약은행 막히면 타은행이 공급…"은행 깐부동맹" — 뉴스1

금융위, 금감원, 은행연, 은행은 합동으로 TF 구성해 집단대출 수요 분산 작업 진행하기로… 4분기 입주 예정 110여개 사업장의 잔금대출 취급현황과 은행별 대출 여력 공유
TF논의를 거쳐 상대적으로 가계대출 여력이 있는 은행이 대출 여력 있는 은행이 대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

국민은행, 전자서명 인증사업자 인정 — 서울경제

KB국민은행, 과학기술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아…
이번 인정 획득을 통해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에서의 입지 공고화,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사업에 참여하는 등 KB모바일인증서 사용 범위 확대 예정

국감 끝나면 하나은행 제재심…내달 중순 전망 — 데일리안

금융당국, 하나은행의 두번째 제재심을 28일 혹은 내달 11일 열릴 것으로 예상… 다만 국감 종료 후에도 가계부채 대책 등 주요 사안 처리 등을 감안하면 내달 11일이 유력
관건은 징계 수위 감경 여부 … 1차 제재심 하루 전날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 배상안 받아들인 바 있어… 서울행정법원의 DLF 판결도 큰 영향 미칠 것으로 분석

은행 "전세대출, 창구에서만"… 카뱅·케뱅 "영업 접으라는 것" 반발 — 머니S

18일 온라인으로 5대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여신담당 실무진이 전세대출 관리 방안 논의… 전세대출 관리 방안을 모든 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방안 논의 목적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1주택자 전세대출을 은행 창구에서만 받는다는 방안에 대해 반발… 카뱅은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 재개 시기 검토 중

KB손해보험, 헬스케어 자회사 출범 미뤘다… 이유는? — 머니S

KB손해보험, 'KB헬스케어'출범 일정을 11월 초로 미뤄…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공공데이터 반출을 막아온 심평원이 다음달부터 해당 조치 완화하기로 결정했기 때문
심평원은 코로나19로 공공의료데이터센터 내방을 중단해오다 지난달 27일부터 일부 개방 시작

60세 이상 고령층, 보험가입 '껑충'… 보험사, 이대로 괜찮나? — 머니S

60세 이상 고령층의 생명보험 가입건수가 지나 10년동안 연평균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를 위한 보험상품 공급량 내놓으면서 고령층 보험가입 증가
최근 10년간 60세 이상 생명보험 신계약 체결 건수 연평균 19.8% 증가… 건강보장에 대한 관심 증가로 질명보험 판매 및 종신보험 판매량 급증

NH투자증권, 증권사 최초 미국 애프터마켓 거래 오전 9시까지 연장 — 한국경제

NH투자증권, 미국 주식 애프터마켓 거래 종료 시가을 오전 7시에서 오전 9시로 2시간 늦춘다고 발표… 국내 증권사 중 NH투자증권이 유일
국내 투자자들이 출근길에 거래 가능… 테슬라, 애플, MS 등 주요 기업들은 정규장 끝나고 애프터마켓 시간에 실적 발표

골드만삭스, 중국서 '지분 100%' 보유 증권사 확보 — 아주경제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중국에서 단독으로 증권사 운영 가능… 지난 8월 JP모건에 이어 외국 금융기업이 중국 100%지분을 가진 증권사 두는 것은 두 번째
2004년 중국 현지 가오화증권과 합작 증권사를 설립한 지 17년 만에 결과… 명칭은 가오성증권… 중국이 월가 공룡들 환영하는 배경은 국내 자본시장 개방 의지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